**이름**

서미태

* **블로그나 브런치,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 활동명과 아이디,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tellme\_sum/ , 서미태, tellme\_sum

* **제출 글 1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bFsyoLu\_5\_영[부사].걸음마.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bFsyoLu\_7\_영[부사].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영[부사]의 뜻은 ‘1. 전혀 또는 도무지, 2. 아주 또는 대단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전혀 또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만나고, 아주 또는 대단히 알고 있을 때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이라 부르기에 영 적당하겠습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시멘트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제출 글 2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bFsyoLu\_16\_당신 꿈이 뭐야 걸음마.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bFsyoLu\_18\_당신 꿈이 뭐야.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경찰관이 되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소고기를 먹어야 고기를 먹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여섯 번 나누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냉면을 먹을 때는 육수부터 마셔야 할까요. 먹고 먹으면 살이 찔까요. 내가 부끄럽다면 소리만 새 나가는 살창에서 살겠습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시멘트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작가인터뷰 - Q1.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적사항 제외)**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건, 어쩌면 꽤 깊은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2.**

글을 쓰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작가인터뷰 - Q2.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글을 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누군가는 받아 적고. 이런 고민과 걱정을 했다는 건, 글을 쓰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글을 쓰며 먹고살 준비를 합니다. 책은 곧 출간될 예정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쓰며 많은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글을 쓰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글을 쓰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겠습니다. 새벽이 이리 깊은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시간이 기다려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글을 쓰지 않고서는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3**

당신에게 글이란?

* **작가인터뷰 - Q3.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음악으로, 지금은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표현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분명 그러합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을 글에다 녹여냈습니다. 글에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덜어내고 나면 조금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거운 글을 좋아하나 봅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메고 세상을 살아가는 글이 가엾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글을 사랑하려 합니다.

* **작가인터뷰 - Q4. 맺음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말주변이 부족해서 건네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마음만큼 표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글을 읽어주시는, 글을 읽은, 글을 읽어낼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겸손하고 꾸준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입니다.